



나주 신촌리 9호 무덤 출토 원통모양 토기



나주 신촌리 9호 무덤 독널과 원통모양 토기 출토 모습



나주 대안리 9호 무덤 경관·영암 쌍무덤 출토 구멍토기



영암 옥아리 19호 무덤 2호 독널 출토품

고대 영산강 유역 독널무덤 고요한 위엄으로 되살아나다

내년 3월15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나주 반남고분군 등 출토 유물 260여점 공개

고대 영산강 유역의 장례문화를 통해 마한인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내년 3월15일까지 2025년 기획특별전 ‘흙으로 만든 널, 고요한 위엄: 고대 영산강 유역 사람의 마음을 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 반남고분군과 영암 옥아리고분·쌍무덤 등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중국청자 등 최신 발굴 자료를 비롯해 독널 관련 유물 2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고대 마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알려진 ‘독널무덤’의 조성 방식과 ‘추가장’ 풍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독널무덤은 한 봉분 안에 여러 개의 독널을 함께 묻는 ‘다

장(多葬)’ 형태로, 흙으로 봉분을 먼저 쌓은 뒤 그 위에 독널을 묻는 ‘선분구 후매장’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친족이 사망하면 같은 봉분 안에 새 독널을 추가로 묻는 ‘추가장’이 이뤄졌다. 한 무덤에 열 기 이상 독널이 더해지는 이러한 풍습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장례 문화로 평가된다.

무덤 정상에는 의례용 토기인 ‘원통모양 토기(圜土器, 분주토기)’를 세워 무덤을 장식했으며, 이는 추가장이 이뤄질 때마다 다시 세워져 한 봉분에 여러 차례 세워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독널무덤의 구조와 조성 방식은 자료 부족으로 명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최근 나주 덕산리 3호 무덤 재조사 등 고고학 성과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 ‘독널로 하나된 사회’에서는 마한의 무덤 양식 가운데 하나였던 독널무덤이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 장례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2부 ‘독자적인 독널무덤 조성’에서는 대형 독널 제작과 무덤 조성 방식, 친족 중심 사회를 반영한 추가장 문화 등 지역적 특색을 조명한다.

3부 ‘공유된 독널 매장 풍습’에서는 독널 안팎의 깨문거리, 주철 흔적, 구멍이 뚫린 독널 등 다양한 장례 풍습을 통해 고대인의 내세관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독널무덤을 만든 영산강 사람’과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운영해 관람객이 보다 깊이 있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영산강 유역의 독널무덤이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마한 전통을 이어가며 점차 대형화되고 체계화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며 “고대 마한과 영산강 유역의 독널무덤을 통해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ACC재단 ‘봄의 선언’ 연계 문화상품 출시

공존·연대 의미 담은 티셔츠, 키트 등 판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봄의 선언’ 연계 문화상품을 출시했다. <사진>

‘봄의 선언’ 전시는 독일의 ZKM 예술미디어센터, M+ 홍콩과 함께 탈자본주의, 생명다양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민주주의 의제를 제시한다.

상품은 전시의 주요 핵심어인 ‘생물다양성’, ‘공존·연대’ 등의 개념에서 착안해 개발했다.

미래의 봄을 기다리는 동반식물의 의미를 담은 ‘씨앗 종이(페이퍼)’, 전시 속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들이 공존하는 봄의 모습을 담은 ‘모빌 키트’를 만날 수 있다.

또 전시 참여 작가 ‘장영혜중공업’의 ‘서울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품 속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와 타이포그래피를 반영한 천 가방 등도 선보인다.

한편 ‘봄의 선언’ 연계 상품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31강〉5. 수천수(水天需)中

수괘 초구의 효사는 ‘수우교, 이용항 무구’(需于郊 利用恒 无咎)라 했다. 즉 ‘교외 먼 곳에서 기다린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수지정(需之井 초구)	
수천수	수풍정

수괘는 험난한 지형을 만나 난관을 극복하는 상이다.

초효는 양위에 양효로 돌파하고자 하는 난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상전에서는 ‘교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재난을 범하지 않음이다. 항심(恒心)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고 탈이 없다는 것은 잃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 해 ‘수우교 불법난행야 이용항 무구 미실상야’(需于郊 不犯難行也 利用恒 无失喪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어려움이 먼 곳에서 발생해 큰 어려움은 겪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이효나 오효에서 이뤄지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교(郊)는 교외로 의괘 감수의 함령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험으로부터 멀리 있고 초구는 인체의 다리, 일의 시작으로 힘이 약하니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때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전(象傳)에서도 ‘불법난행야’(不犯難行也)라 해 ‘함부로 범하지 말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수괘의 초구(需)는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在仕는) 상직을 지켜야 관직이 떨어지지 않는다(則守常職 而難陟不可/즉수상직 이출척불가/難 물리칠 출, 陟 오를 척). 선비(士는) 마땅히 외로 지방을 좇으면 비록 성취함이 있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則宜從外路 雖有造就而志意不愜/즉의중의로 수우조취이지의불척/愜 흡족할 함). 경영자는 옛 대로 잘 지키고 편안히 여겨 재앙을 범하지 않으며 화를 짓지 않는다(經營者 守舊安常 災不犯而禍不作/경영자 수구안상 재불범이화불작). 만약 수가 다한 자는 교야에 장사지낸다(如數空者 葬于郊野/여수공자 장우교야)를 얻으면, 현업을 유지하고 전업을 하면 안된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잘못된 범행과 행동을 하지 말고 오효까지 기다려야 한다. 초구가 변하면 수풍정(水風井)이 된다. 정괘(井卦)는 우물의 상으로 우물은 소유자가 이사를 가도 새로운 소유자가 그대로 변함없이 쓴다. 이는 항(恒)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초구에서는 이효, 삼효의 양효가 길을 막는 장애가 있어서 일을 진행시키기가 불가한 때이니 사업, 거래, 바람, 전업, 혼인, 여행, 취업 등 모든 일들은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임태는 조금 늦어지고 무리하면 산후(産後)의 출혈이 많아 모체가 쇠약해 진다. 기다리는 사람이

나 가출인은 도둑이나 바람처럼 멀리 도망 가버리니 추적해야 하고 분실물은 교외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집 안에서는 물건이 그다지 많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고 감수도둑이 바람처럼 들어와 흩쳐 갔다고도 볼 수 있다.

병점에서 병세는 각기 다리병, 불식(不食), 변손(變巽)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어려움이니 소변 불편 등으로 발병의 초기라 할 수 있다. 낱새는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분다.

‘실점’에 ‘모 상인이 이익이 많고 전망이 대단히 좋은 회사의 주식 매입 여하’에 대해 입서해 초구를 얻고 점고하기를 ‘지금은 위험(상괘 坎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유혹이나 간책(奸策)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45개월 후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회사가 재난을 당해 주가는 하락하고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기 되니 그 때 매입하면 다시 그 회사는 성대하게 발전한다’고 했다. 과연 5개월 후에 그렇게 됐다. <※고도탄상(高島呑象)점예要約>

수괘 구이의 효사는 ‘수우사, 소유언 종길’(需于沙 小有言 終吉)이다. 즉, ‘모래밭에서 기다린다. 조금은 구설이 있으나 종국에는 길하다’는 뜻이다.

수지기제(水火既濟 구이)	
수천수	수화기제

이효는 음위에 양효로 부정(不正)하나 양강중용(陽剛中庸)의 덕을 갖추고 있어 비난 등 중상모략이 있어도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 길한 결과가 있다.

상전에서는 ‘모래밭에서 기다리는 시기는 너그럽게 중도를 지키고 기다려야 하며 비록 구설이 있으나 결국에는 길하다’고 해 ‘수우사 연재중야 소소유언 이길종야’(需于沙 衍在中也 雖小有言 以吉終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언쟁, 말다툼, 헐뜯는 말들이 있다(小有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문제는 있으나 일이 이뤄진다. 여기서 소(小)는 ‘작을 소로 여자, 아랫사람, 어린이’라는 뜻이고 언(言)은 말쟁, 장애라는 의미이다.

초구가 교외인데 구이는 모래지다. 구삼은 진흙밭, 갯벌인데 아직 그 곳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위험에 가깝지는 않다. 구이는 중(中)을 득하고 음위에 양효가 있으니 나아가지만 않으면 위험에 빠질 일은 없으나 위험이 앞에 놓여 있으니 말쟁이나 장애가 많아 소유언(小有言)이라 했다.

상전에서는 ‘연재중야’(衍在中也)라 해 ‘양측의 제방 가운데 물이 가득 흘러 풍요롭게 발전한다’고 한다. 즉 ‘수(需)의 시기이니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안달하지 않으면서 너그러운 태도로 기다리면 구이가 변해 수화기제(水火既濟)이니 말쟁이나 분쟁은 정리되고 일이 이뤄진다’

는 것이다.

점사에서 문점해 구이(需)는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이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연로에 들어가 버릴말 하다가 혹사악한 공론에 막힌다(則入言路正論或阻於邪議/즉입언로정론혹조여사의). 선비는 비교해 생각해 본 즉 반드시 언책을 만나니 끝에는 가히 몸애 욕되는 위태로움을 면한다(則考較必遭言責 終可免身辱之危/즉고교필조언책 증가면신욕지위). 재서숙은 필히 시비를 주장해 낯뜨거워지고 숭사하는 여지(理)가 있으니 대제로 마땅히 사람을 너그러이 대접한 즉 백가지 땀한 것을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밝혀진다(則必以是非 弗申訟訟之憂大抵宜寬緩以待人 則百結不辨而自明/필주이시비 비유쟁송지오 대저 의관완이대인 즉백결불변이자명)를 얻으면, 이 시기에는 언쟁, 말다툼, 헐뜯는 말들이 있으니 신중히 가만히 있어야 한다. 물을 건너려면 뭇가의 모래사장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듯,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나서서 기다려야 한다. 구이를 모함하고 저지하는 말과 구설수(小有言)가 있으나 크게 좌우될 필요는 없다.

바람, 사업, 혼인, 여행, 취업, 전업 등은 보류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길하다. 임태는 늦어진다.

가다리는 사람과 가출인은 오지만 늦게 오며 분실물은 나타나나 다소 손상이 있다.

병점에서는 외한내열(外寒內熱), 방광장애, 색정(色情)에 기인한 병, 변비 등으로 무겁고 오래간다. 중태인 자는 변기제(變既濟)이므로 생명이 위험하다. 낱새는 맑고 흐름을 반복한다.

‘실점’에 ‘변제 기한이 지난 채권의 변제가능 여하’에 대해 입서해 수괘 이효를 얻고 점고하기를 ‘수괘는 오효까지 기다려야 일이 이뤄지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有孚). 변제가 늦어지는 것은 채무자(상괘)가 거래상 생각지 못한 장애가 생겨 힘들고 분주하기 때문이다(小有言). 사개월 후에 변제가 이뤄질 것이니(終吉) 기다리면 된다’고 해 결과는 그러했다.

수괘 구삼의 효사는 ‘수우니, 치구지’(需于泥 致寇至)로 ‘진흙밭에서 기다리다가 도둑을 불러 들인다’는 뜻이다.

수지절(需之節 구삼)	
수천수	수택절

삼효는 위태 불안한 양위의 자리에 양강한 양효가 있는데 중위(中位)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경망스럽게 나아가고자 해 진흙밭에 빠지고 도둑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구삼은 구이보다 감험(坎險)에 더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함험(陷險)에 빠져버리는 때이다. 그래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감험(坎險)에 빠져 상해를 입고 도적이 찾아온다. 구삼은 건(乾)의 극(極)이고 삼양

(三陽) 중에서 나아가는 힘이 가장 강하니 신중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전에서도 ‘재재외야 자자치구 경신불패야’(災在外也 自我致寇 敬慎不敗也)라 해 ‘재앙이 밖에 있어 내가 움직이면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이니 경계하고 신중히 해 내가 나아가지만 않으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때는 내 것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고 문서이동, 자리변동, 계약파기 등이 일어난다. 오효를 얻어야 일이 이뤄지니 기다려야 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구삼(需)은 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삼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반드시 내쫓겨 귀양감을 만나니 자기 친척에게 누를 끼침이다(必遭貶逐 而自貽伊戚/필조평축 이자이이척/貽 끼칠 이, 伊 자이). 선비는 반드시 치욕을 당해 스스로는 떨쳐 버릴 수는 없다(必受恥辱 而無以自拔/필수치욕 이무이자발). 서숙은 도둑맞고 잃어버리고 뺏기는 탄식을 막아야 하며 배로 다니는 자는 수역을 일는다(宜防寇盜失奪之嘆 行舟者 被水厄/의방구도실탈지자 행주자 피수액)를 얻으면 나아가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방책이고 근심 걱정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진흙 밭에서 움직이면 수렁에 빠져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병난(病難), 수난(水難), 도난(盜難)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바람, 혼인, 임태, 여행, 취직, 전업 등은 불가하다. 가다리는 자는 오지 않고 가출인은 수난 또는 병난을 당하며 분실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병세는 담배(痰咳), 인후(咽喉), 요통, 고절(苦節) 등으로 악화돼 간다. 낱새는 비구름에 흐르고 습하다.

‘실점’에 ‘모인의 신상 여하’를 입서해 구삼을 얻고 점고하기를 ‘구삼은 내괘의 끝에 있고 외괘 감험(坎險)의 가까운 곳에 있으니 위험에 처해 외라고 해 수우니 치구지(需于泥 致寇至)’라 한다. 즉 진흙탕 속에 빠져 원수를 불러들여 재난을 당한다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스스로 원수를 불러들이나 이를 경계하고 신중하면 패하지 않는다고 해 자자치구 경신불패야(自我致寇 敬慎不敗也)라 했다. 지금은 위법행위, 병, 재해 등으로 인해 재난에 처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고 근신하라’고 말했다. 다행히 급병(急病)이 발생했으나 열심히 치료한 결과로 무사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